



convergence·Munch
TECH & bey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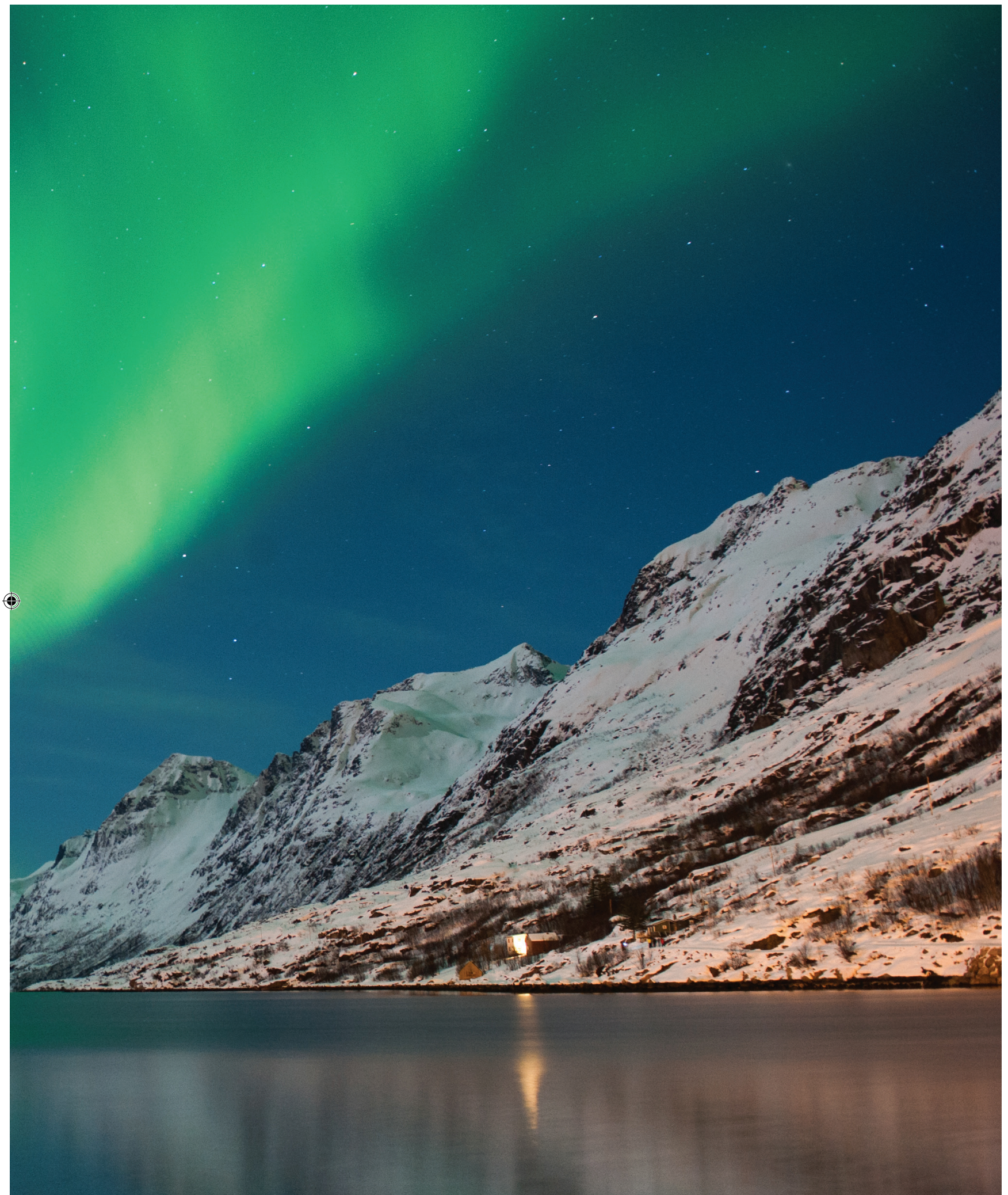
에드바르 뭉크(EDVARD MUNCH, 1863~1944)는 불안과 공포, 우수와 고독, 죽음 등 인간 존재의 추상적·철학적 테마를 극도로 양식화한 암시적인 색채와 단순하면서도 강한 구도로 조형화한 표현주의의 선구자다. 뭉크의 예술과 비극적인 사랑을 둘러싼 삶은 '뭉크 150'에 잘 나타나 있다. 뭉크의 탄생 150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뭉크 150'은 단연 돋보인다. 노르웨이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열린 그에 관한 전시회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다. 예술가로서 뭉크는 1899년 초기 데뷔에서 1994년 죽음에 이르기까지 60여 년을 활동했다. 뭉크는 일생을 통해 예술에 신선하고 창조적인 헌신을 지속했으며, 그의 작품들은 수 세대에 걸쳐 영감을 주고 성나게 하거나 기쁘게 했다.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는 2013년을 뭉크를 위해 할애했다. '뭉크 150'은 그의 작품을 시대순으로 다루며 인생과 작품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제공한다. 전시회는 변화하는 뭉크 자신에 대한 초상화, 그가 지속한 화법들, 세련된 특별 모티브로 분리된다. 주요 작품 시리즈는 The Frieze of Life(1902)와 The Reinhardt Frieze(1907)이나 뭉크의 끊임없는 변형으로 그에게 익숙한 장소와 풍경들도 곁들여 약 220점의 페인팅, 50점의 드로잉과 그래픽이 전시된다.

'뭉크 150'은 현대예술에 대한 기본을 깨뜨리는 기회도 제공한다. 뭉크는 정통이 아닌 스타일로 그에 대한 존경과 분노를 동시에 유도했다. 그의 계속된 실험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이 전시회는 노르웨이 예술건축디자인박물관(Norwegian Art, Architecture and Design)과 뭉크뮤제움(Munch Museum)의 협조, 노르웨이와 외국의 공공 및 개인 기관의 관대한 대여로 가능하다. 뭉크의 1882~1903년 작품은 국립미술관(Nasjonalgalleriet), 1904~1944년은 뭉크뮤제움에 각각 전시된다. 오슬로 대학의 아우라강당, 프리즈홀, 에켈리의 뭉크 스튜디오는 전시 기간 주말에만 열린다.

뭉크 탄생 150주년 사랑과 고독을 말하다

이희숙 디자이너·저널리스트 leeheesook@hotmail.com





1

노르웨이가 낳은 세계적 거장

신비의 화가 몽크는 죽음이 질게 드리운 삶을 살았다. 인간 몽크는 1863년 러텐에서 5형제의 둘째로 태어났으며, 군의관인 아버지는 가족을 크리스티아나로 옮겼다. 몽크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누나 소피가 폐렴으로 죽은 슬픔을 겪었고, 나중에는 남동생 안드레아스도 같은 병으로 사별했다. 몽크는 1879년 엔지니어학교에 입학했으나 즉시 코스를 바꾸고 1880년 크리스티아나 왕립 드로잉아카데미에 입학, 대학도서관에서 혼자 예술사를 공부했다. 아카데미의 보수성은 그와 다른 젊은 학도들로 하여금 1888년 학교를 떠나 예술가 크리스티안 크로그가 가르치던 풀토스텐(Pultosten) 스튜디오로 옮기게 했는데, 당시 크로그는 파리에서 돌아와 몽크에게 유럽 예술의 국가적인 인식과 흐름을 소개했다.

1883년 몽크는 크리스티아나 국전에 데뷔하였고, 프리츠 타우로프의 오픈 에어 아카데미에 참석했다. 타우로프는 몽크를 지지하여 그의 작품 Morning(1884)을 구매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1888년 파리를 방문하게끔 장학금도 주었다. 다음 몇 년 간 몽크는 정치·도덕적으로 과격한 크리스티아나 보헤미안 그룹에 빨려들어 작가 한스 예거, 요나스 리, 예술가 크로그, 칼

구스타브 엔센의 진보파와 친했다. 이 기간은 일생 그의 인간생리, 심리패턴에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몽크의 첫 개인전은 1889년 4월 오스고르드스트란(Åsgaardstrand)에서 열렸다. 이해 10월 국가장학금으로 파리로 여행, 레옹 보나의 스튜디오에 입학해 세계박람회와 테오 반 고흐의 갤러리를 방문했다.

1890년 아버지의 죽음에 그는 쇠약해졌으나 예기치 않은 세 번째 장학금으로 파리에 돌아와서 크로그로부터 영감을 받은 자연주의에서 인간 내면에 반항을 일으키는 합성(synthetic) 예술로 옮겼다. 1892년 크리스티아나 개인전 후 베를린 초청을 받았으나 그의 그림이 스캔들을 일으켜 전시회는 며칠 만에 끝났다. 이를 계기로 막스 리버만의 주창에 따라 베를린 분리파(Berlin Secession)를 창단했다.

몽크는 파리를 방문하고 노르웨이에서 여름을 보내면서 베를린에 남아 'Pan' 잡지를 발행한 보헤미안 작가 및 예술가들과 어울렸다. 극작가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 시인 스타니슬라프 프시비세프스키, 비평가 율리우스 마이어그레페다. 야심적인 Frieze of Life를 구상한 몽크는 상징주의자로서 1895년 핀란드 화가 아르셀리 갈렌칼레라와 전시했고, 1년 후 파리로 돌아와

프랑스 시인 스테판 말라르메의 모임으로 옮기면서 사무엘 빙의 아르누보 갤러리에 전시했다. 몽크의 컬러 리소그라피와 우드컷의 그래픽 실험은 폴 고갱과 펠릭스 발로통의 장식미술에 혜택을 받은 것이며, 컬러와 라인의 심리적인 잠재성 추구는 그의 독창성이다.

이때 몽크는 정신적 피로와 심한 알코올의 고통에도 여전히 창조적이었다. 1902년 Frieze of Life를 베를린세션에 전시했고, 노르웨이와 파리 연극무대를 디자인했다. 1908년에는 오슬로대학 아우라 벽화 경연에 선정되었는데 주제는 빛나는 북구의 태양과 노르웨이 민족주의 철학을 상징하는 근육적인 젊음이다. 몽크는 1916년 벽화를 완성시킨 후 오슬로 외곽인 에켈리에 집을 사서 여생을 보냈다. 유럽의 모든 중요 도시에 전시한 가장 이름난 국제적인 예술가이며 독일 표현주의자에 의해 존경받았음에도 그는 1944년 81살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거의 고립된 삶을 살았다.

비극적인 사랑

예술가에게 영감을 제공하는 배경에는 여성들이 존재한다. 몽크도 예외가 아니다. 그의 삶에는 세 명의 여성이 있다. 첫째는 오세 노러고드로, 그들은 1888년 크리스티아나에서 만났다. 화가였던 오세가 몽크의 친구 헤랄드 노러고드와 결혼했을 때 몽크는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그는 교회 기둥에 기대어 몰래 울었으며 바보스럽게 그녀와 결혼하지 못했음을 후회하였다고 나중에 회고하였다. 오세는 몽크의 영원한 여자 친구로서 순수한 우정 같은 사랑을 나눴고, 그의 이상적인 여인이었다. 두 번째 여성은 몽크의 첫사랑인 밀리 테올로브이다. 그들은 1885년 오스고르드스트란에서 만났다. 비록 몽크는 그녀의 초상화를 그리지 않았지만 1890년 그녀를 모티브로 한 많은 그림을 볼 수 있다. 몽크는 그녀를 '하이베르크 부인'이라고 불렀는데 연상이며 기혼자인 그녀의 질투심 강하고 과묵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 아름다운 밀리는 젊은 몽크에게 사랑의 신비하고 에로틱한 면을 가르쳤다. 비록 짧은 관계였지만 몽크의 예술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마지막은 35살의 성인 몽크에게 가장 큰 불행을 안겨준 여성으로, 보헤미안 그룹을 통해 만난 툴라 라르센이다. 그들 사이에는 충격사건도 있었다. 그들은 1898년 여름 크리스티아나에서 시작, 4년간의 불규칙한 만남을 가졌다. 몽크는 여성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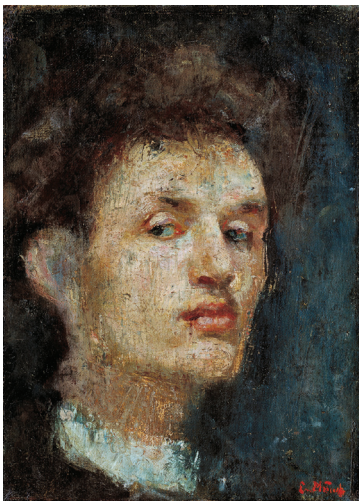
1 Edvard Munch: Summer Night, The Voice, 1896 Oil on unprimed canvas, 90 x 119.5 cm
Munch Museum, Oslo © Munch Museum / Munch-Ellingsen Group / BONO, Oslo 2013 Photo: © Munch Museum
2 Edvard Munch: Self-Portrait, 1886 Oil on canvas, 33 x 24.5 cm National Museum of Art, Architecture and Design, Oslo
© Munch Museum / Munch-Ellingsen Group / BONO, Oslo 2013 Photo: © Jacques Lathion, National Museum
3 Edvard Munch: Starry Night, 1922-24 Oil on canvas, 120.5 x 100 cm, Munch Museum, Oslo © Munch Museum/
Munch-Ellingsen Group / BONO, Oslo 2013 Photo: © Munch Museum

주로 여름에 만났는데 이는 노르웨이인들이 야외생활을 즐기는 점과 연관이 있다. 특히 톨라와의 충격 미수사건으로 몽크는 패러노이드(편집증)적 신비에 더욱 고립되었다. 사랑 결핍과 함께 화장을 하지 않는 그림으로 비극적이고 운명적이며 파괴적인 상징을, 또는 나체 그림을 통해 여성의 잔인하고 슬픈 고통을 미지의 세상에 알렸다. 또는 큰 눈을 뜬 모습에서 진실하게 내부를 전체적으로 찾는 표현주의와 상징주의의 전환기를 맞는다. 그의 대표작 '마돈나'에는 새 생명을 낳음으로써 고통으로부터 자유화하는 점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에로틱한 여름밤과 송고한 겨울밤

1893년 몽크는 The Frieze of Life 시리즈를 시작했다. 각각의 그림은 생, 사랑, 죽음이 미스터리와 연결된 인간 심리의 연속이다. Summer Night's Dream(1893)은 이 시리즈의 첫 그림으로, 1893년 크리스티아나와 1902년 베를린 브리파 전시회에 다른 그림들과 전시되었다. Summer Night's Dream은 오스고르드스트란 해변의 신비로운 블루 황혼을 묘사하였는데 그림 제목은 한여름 밤(mid-summer night)이며, 여름과 빛이 돌아옴을 축하하는 것으로 사회 도덕적 규범의 포기과 광란이 노출되는 순간과 연결된다. 피오르의 나무가 자라는 해변은 한여름 밤에 연인들의 전통적인 만남 장소로 알려져 왔다. 시인 프란츠 세르베는 1894년 이 세팅에 "여기 성적 욕망이 창백한 달밤이 바다 가까이 있는 동안 처음으로 강직하게 일어나 소녀들은 나무들 사이로 배회한다. 그녀의 손들이 함께 꼭 쥐어지고, 그녀의 머리는 뒤로 넘어간다. 그녀의 눈들은 크게 흡혈귀같이 주시한다. 그러나 세상은 안개와 눈부심, 성적 환상과 혐오감의 혼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묘사했다. Summer Night's Dream의 주제는 몽크 자신의 경험으로, 파트너의 신호하는 눈을 응시하면서

2



그의 첫 키스 순간을 추억하는 것이다. 처녀인 듯한 여자의 기다리는 자세에서는 묘한 성적 그리움을 위협하는 힘이 느껴진다. 그녀는 공격적으로 전경에서 어렵듯이 나타나 관중에게 주관적 대답을 요구한다. 즉 그녀의 공포와 혐오에 대한 몽크와 관중의 반응, 아니면 깨어남과 기대라고 할까.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의 이론인 여성의 에로티시즘이 파괴와 연결돼 The Frieze of Life를 통해 계속되는데 당시 허무주의 퇴폐론자의 움직임과 관련된다. 나무의 기하학적 규칙성과 물 위에 반영하는 반짝임의 이동은 그녀의 강직한 지배를 반항 시킨다. 그녀는 여름밤의 두근거리는 에로틱한 분위기를 나누면서 긴장된 풍경을 속으로 흡수하고 있다. 1916년 오슬로 대학 아우라 벽화 제작식은 조국에 대한 몽크의 위대한 예술적 승리였다. 그는 크리스티아나 외곽 에켈리에 집을 샀으며, 여생을 이곳에서 보냈다. 풍부하고 다양한 예술 생상의 기본으로, 그의 젊은 보헤미안 추억이 그의 작품에 새 돌출구로 나타났다. 1890년부터 이 주제들을 다시 끌어들이 더 큰 형태와 새로운 컬러 효과를



3

담았다. 에켈리에서 몽크는 그림에 둘러싸여 몇 명의 친구들만 접촉했다. 그리고 그의 많은 문학적 노트를 검토하면서 생과 예술에 관해 명상했다. 또 중간에 그린 자화상을 통해 그의 상태를 보고했다. Starry Night, Ekelly(1923~1924)는 1890년을 재연결시키는 신낭만주의 분위기의 블루 페인팅이다. 그림에도 젊음의 불타는 강도는 깊고 고요한 사임(resignation)의 감정으로 대체되었다. 이 주제는 에켈리 집에서 본 먼 도시의 빛이다. 물결치는 겨울 풍경이 뚜렷하고 별 많은 하늘 아래 펼쳐지면서 풍부하나 억제된 컬러는 눈 위의 빛을 잡고 있다. 언덕, 나무, 쌓인 눈은 모두 지속해서 커브가 진 평면으로, 원근법을 사용하면서 떠도는 별 자체의 커브를 제시한다. 몽크는 자신의 작품에서 인간의 운명은 마치 어둠 속에 나타나서 다른 별을 만나고, 잠깐 빛을 내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물러가는 한 별이라고 했다. 헨리크 입센의 후기 작품인 'Johan Gabriel Borkmann'을 연상시키고, 겨울 풍경으로 이 극작을 참고한 많은 몽크의 그림이 있다. 입센의 주인공 보크만은 큰 이상을 품은 특수한 성격으로 마침내 파괴되고 고립돼 물러선다. 몽크의 그림은 이와 같은 강한 동일성을 갖는데, 특히 마지막 장면이 그렇다. 보크만은 겨울밤에 죽기 위해 뛰쳐나간다. Starry Night에서 난간은 베란다에서 정원으로 이끈 곳으로, 한 모습이 눈을 통해 그림자를 던진다. 이 그림을 보면서 관중은 스스로 연극 주인공이 되어 몽크의 비전, 즉 무대에서 보크만의 마지막 출구로써 생과 죽음 사이의 화해와 체념을 나눈다. ❶